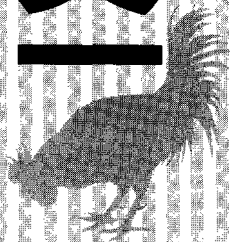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세계

캐나다, 채란업 경영여건 부문 1위

IEC(국제계란위원회)는 각국의 계란 생산비, 계란가격, 마진율을 조사하여 채란업의 경영여건을 조사,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전체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캐나다가 생산비에서 4위(35원), 계란가격에서 28위(77원), 마진율에서 4위(42원)를 차지해 경영여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계란생산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계란 1개에 .29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곳은 노르웨이로 68.6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가격을 보면 가장 낮은 나라는 역시 인도네시아로 33.9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나라는 러시아로 113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진율에 있어서 러시아가 무려 68.8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16.3원으로 적자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10위안에 든 나라를 보면 캐나다, 브라질, 우크라이나, 미국, 인도네시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인도, 멕시코,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지난 1998년도 1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PI)

가금육 소비량, 2008년 돼지고기 소비량 추월 예상

국제 가금협회 부회장인 William P.R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08년에는 닭고기 소비량이 돼지고기 소비량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1998년도 세계 육류 소비량은 1억9천만톤으로 과거 10년전에 비해 무려 33%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돼지고기는 8천5백만톤으로 전체 소비량의 44.7%, 가금육은 5천5백만톤으로 29.0%, 쇠고기는 5천만톤으로 26.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William박사는 돼지고기가 10년전에 비해 33%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닭고기는 무려 77%의 급속한 신장세를 보인 점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돼지고기가 닭고기 소비를 앞지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WP)

이스라엘

세계 가금육 소비 1위

이스라엘이 지난 1990년대 이후 가금육 소비 1위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미농무성(USDA)은 발표하였다. 이스라엘의 가금육 소비는 지난해 1인당 45kg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이 42kg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가금육에 대해 30kg을 넘게 소비하는 나라는 캐나다(35.1kg), 싱가포르(34.4kg), 사우디아라비아(32.4kg), 대만(32.2kg)으로 각각 나타났다.(WP)

표1. 세계 1인당 가금 소비량 비교(kg/인)

국 가	1988년	1990	1995	1998*
이스라엘	-	37.0	45.3	45.0
미 국	33.8	36.5	40.1	42.0
카 나 다	27.4	27.7	32.0	35.1
싱가포르	-	-	34.3	34.4
사우디아라비아	31.3	27.4	32.2	32.4
대 만	21.0	23.0	29.7	32.3
호 주	24.6	24.4	27.4	27.7
영 국	20.7	21.0	25.3	27.2
아일랜드	-	20.2	23.0	27.0
스 페 인	22.6	23.2	24.8	26.2
포르투갈	20.1	20.6	23.6	25.3
프 랑 스	19.5	21.5	22.3	24.9
브 라 질	12.2	13.8	23.3	24.4
남아프리카	-	-	20.6	23.9
그 리 스	15.4	16.0	18.4	22.6
네덜란드	15.1	17.1	20.5	22.1
아르헨티나	13.6	10.3	21.1	21.1
멕시코	-	-	18.6	20.1
이탈리아	17.7	18.8	18.7	19.3
러 시 아	11.8	13.6	11.8	12.8
중 국	2.5	2.8	8.1	10.6
인 도	-	-	0.6	0.6

일본

닭고기 자급률 67%, 계란 자급률 96%

농림수산성이 1997년도 식료자급율을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전체 식료자급률이 41%로 나타났으며 그중 닭고기는 67%, 계란은 96%로 각각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닭고기, 계란을 포함한 돼지고기(67%), 야채(86%)는 전년도와 자급률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쌀(99%),

쇠고기(36%), 우유 유제품(71%)은 자급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일(53%), 생선류(72%)는 자급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도 육류의 경우 식중독(O-157), 광우병 등으로 인해 쇠고기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육류 소비가 1%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1kg, 닭고기는 17.6kg으로 발표되었다.(鶏鳴新聞)

루마니아

닭고기와 천연가스 맞교환키로

루마니아의 Dino 농림부 장관은 러시아가 닭고기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돈이 아닌 천연가스를 공급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루마니아 정부는 우선 1만톤의 닭고기를 올해 안에 러시아에 수출할 것이며 이 물량은 루마니아 닭고기 생산물량의 잉여생산분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WP)

세계

오리의 생산비 내역

World Poultry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리의 생산비 내역을 발표하였다. 그 내역을 보면 사료비 36%, 인건비 16%, 초생추비 14%, 깔짚비 9%, 수선비 5%, 감가상각비 5%, 운송비 3%, 방역비 2%, 전기료 2%, 수도 광열비 2%, 기타 6%로 나타났다. 닭과 비교해 볼 때 오리는 사료 효율이 높아 사료비중이 전체중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에도 강해 방역비가 2%선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WP)